

재일 한인문학의 특장(特長)과 균열의 틈새*

- '문예동' 소설의 전개 양상과 특성을 중심으로

이상갑(부경대) · 정덕준(중국 연대대학)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 세대간의 갈등과 균열의 틈새 |
| 2. 뼈뺌코 가게 - 북한의 '주체사상'과 재일 조선인의 삶의 간극 | 4. '민족'과 '개인'의 균열과 그 틈새 |
| | 5. 마무리 |

1. 머리말

재일한인¹⁾의 이주 역사는 러시아·중국으로의 이주에 비해 뒤늦은 1910년 경부터 시작된다.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 이후 수많은 농민들이 급격히 몰락해가는 농촌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으로 도항(渡航)하게 되는데, 그 수는 해가 지날수록 점점 늘어난다. 그리고 1939년 이후에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따라 강제 징용당한 조선인 노동자와 농민들이 일본 각지로 보내지게 된다. 그리하여 1945년 광복 직전의 재일한인은 유학생을 포함하여 210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과제지원사업임(KRF-2009-32A-A000094).

1) '문예동' 소속 작가들은 한글로 창작되지 않은 재일한인의 문학은 '재일조선인 문학'으로 구분하여, 일본문학의 일종으로 본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재일 한국인 작가'와 '재일 조선인 작가'를 비롯하여 국적과 언어와 관계없이 재일한인이 일본에서 창작한 문학을 '재일한인문학'이라 칭한다.

만 명에 이르게 된다. 광복 후, 대부분의 재일한인은 종전 직후인 1946년 말에 귀국한다. 하지만 고향에 생활의 근거가 없거나 또는 민족 분단과 뒤이은 한국전쟁 등 한반도의 정치·경제·사회적 혼란 때문에 돌아갈 곳을 잃게 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일본 현지에 잔류하게 된다.

일제 강점과 남북 분단이라는 한민족의 특수한 역사·사회적 배경은 근대 이후 자·타의에 의해 일본에 거주하게 된 재일한인의 삶과 정체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재일 한인사회는 남북 분단의 고착화와 일본의 남북 등거리 외교에 따라 ‘재일본조선인거류민단’(이하 ‘민단’으로 약칭)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²⁾(이하 ‘조총련’으로 약칭)로 갈라져 대립하는 등 한반도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예리하게 반영하면서, 한국(또는 북한)과 일본 사회에서 모두 배척받는 ‘경계인’으로서의 삶을 강요받아온 것이다. 특히 다른 지역의 이주 한인들과는 달리, 재일한인은 국적 차별로 생존권을 위협받으면서도,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한인 2세조차도 모국의 국적을 고수하는 특별한 상황에서 삶을 영위한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2, 3세대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재일 한인사회 내부에서도 일본사회에의 적응 방식과 스스로의 정체성 문제로 심각한 진통을 겪게 된다.

재일 한인문학은 이러한 재일한인의 특수한 현실 상황, 이주 초기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어온 이러한 민족 차별과 억압의 현실을 짙은 필선으로 그리는 한편, 그런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민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고뇌하고 저항해 나가는 모습을 담고 있다. 재일 한인작가들의 작품을, 그것이 비록 우리와 이념이 다르거나 또는 현지어로 창작 발표된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들만의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한민족문학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재일한인은 다른 지역의 한인과는 달리, 인종이나 언어·문화에 있어 현지인과 거의 구분되지 않는 소수민족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것은 물론 일본인과의 인종적 유사성뿐 아니라 일제 강점기부터 지속된 일본의 동화정책의

2) 1955년 5월에 결성되었으며, 그 전신은 1945년 10월에 결성된 ‘재일본조선인연맹’(이하 ‘조련’)이다.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재일 한인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일본 정부의 강압적 동화정책에 어떻게 대처하여 왔는지, 그리고 민족 차별에 대응해가며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해가는 혹은 변화시켜 나갈 수밖에 없었던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고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재일한인은 일본에 ‘귀화’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한국 또는 북한(조선) 국적을 지니고 있다. 한국 국적의 ‘민단’ 소속 작가들은 일부 일본 이름으로 그리고 일본어로 창작활동을 하는 데 반해, 북한 국적의 ‘문예동’³⁾ 소속 작가들은 한글(조선어)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북한의 ‘해외 공민’이라는 의식을 지닌 ‘문예동’ 소속 작가들은 자신들의 문학을 북한(조선)문학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그리하여 한국 국적을 가진 ‘재일 한국인 작가’⁴⁾와 구별하여 자신들을 ‘재일 조선인 작가’로 부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80년대부터 ‘조총련’에 대한 방해 공작을 노골화, 1995년에는 ‘반(反)총련’의 구호 아래 그것을 더욱 강화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재일 한국인’과 ‘재일 조선인’의 분열을 가속화시킨다. 이에 대응하여 ‘문예동’ 소속 작가들은 북한의 사회체제와 이념을 선전 고취하는 작품들을 창작 발표하는데, ‘문예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대부분은 이런 관점을 재확인하거나,⁵⁾ 재일 조선인에게 북한은 그들이 지향하는 근대적 민족국가의 대체물임을 확인⁶⁾하는 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작가 개인의 ‘개별성’에 주목할 수가 없는 것이다.

-
- 3) ‘조총련’의 산하단체로서, 1959년 6월 7일에 결성되었다. 1960년 1월 기관지 『문학예술』을 창간한 후 2000년 제명을 『겨레문학』으로 바꿔 발행하고 있다.
 - 4) 이에 대해서는 유숙자의 『재일 한국인 문학연구』(월인, 2000) 참조. 유숙자는 여기서는 ‘재일 한국인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폭넓게 조명하고 있다.
 - 5) 한승옥, 「재일동포 한국어 문학연구 총론(1)」, 『한중인문학연구』, 한중인문학회, 2005. 4./ 김형규, 「귀국 운동과 ‘재일(在日)’의 현실-재일본문학예술가동맹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한중인문학회, 2005. 8./ 김종희 엮음, 『한민족문화권의 문학 2』, 국학자료원, 2006.
 - 6) 이정석, 「재일 조선인 한글문학 속의 민족과 국가」, 『현대소설연구』,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6.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문예동’ 작가들의 작품세계에 미세한 변화의 조짐이 드러난다. ‘빠짱코’ 가게를 둘러싼 ‘생활’ 문제라든지, 세대 간의 갈등이나 ‘국가’와 ‘민족’에 대한 보다 심화된 인식이 그것이다. ‘주체사상’과 ‘민족의 녀’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던 이전의 소설들과는 달리, 이러한 균열의 틈새는 재일 조선인 사회의 미세한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따라서 이 글은 ‘문예동’ 소속 작가들의 작품 세계, 그리고 이러한 미세한 변화의 조짐이 갖고 있는 의미와 그 이후의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빠짱코 가게 - 북한의 ‘주체사상’과 재일 조선인의 삶의 간극

1990년대에 접어들어 (구)소련이 붕괴하고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면서 ‘조총련’과 ‘문예동’의 입지는 크게 축소된다. 특히 1995년 이후 ‘반(反)총련’ 캠페인이 부쩍 거세지고 있고, 일본인과의 국제결혼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총련’은 민족어⁷⁾와 민족문학·민족교육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1999년 6월 ‘문예동’이 『문학예술』을 폐간하고 2000년 제호를 바꿔 『겨레문학』을 창간한 것도 젊은 작가들에게 최대한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민족문학의 명맥을 이어가겠다는 고충에서 나온 것이다.⁸⁾

‘문예동’에 소속된 작가들의 작품은, 북한의 ‘주체사실주의’⁹⁾에 입각하여 ‘주체사상’을 전면에 드러낸다.

7) 박종상은 「조선글로 소설을 쓰는 의미—<오늘 왜 조선글로 소설을 쓰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겨레문학』, 2000, 겨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조선글을 읽지 못하는 동포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재일>의 조건을 고려하여, 비록 조선문학의 테두리에서 벗어날지라도 일본글로 소설을 쓸 필요를 나는 부정하지 않는다.”

8) 이상갑, 「재일 조선인 문학비평의 민족문화적 의미」, 『한국언어문학』 제68집, 2009. 3. 411-414쪽 참조.

9) 위의 글, 423쪽.

우리 문학예술이 의거하고 있는 우리 식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은 그 형성의 사회력사적 경위에 있어서나 철학적 기초와 미학적 원칙에 있어서 선명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구별되는 새로운 창작방법이다. 우리 문학예술이 의거하고 있는 우리 식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은 주체사실주의, 주체사실주의 창작방법이다.¹⁰⁾

위에 보인 대로, ‘문예동’의 주된 논리는 작품에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계몽하고 그를 통해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 나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북한 문학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예동’은 ‘재일(在日)’이라는 시공간적 조건에 의해 특수성을 떨 수밖에 없고, 실제로 세대가 흐를수록 그 상황은 심화될 것이다. 이 글이 1990년대 이후 그들 문학의 미세한 변화를 읽어보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박종상의 「어머니 심정」¹¹⁾, 서상각의 「추억」¹²⁾, 리상민의 「황금탑」¹³⁾에 등장하는 빠짱코 가게는 이러한 미세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 「어머니 심정」에서는 ‘목련’과 ‘빠짱코 가게’의 미세한 차이를 감지하게 된다. 주인공 동호는 벌써 20년째 조선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 대학교를 설립한 초대학장은 대학 구내에 ‘목련’을 많이 심었다. ‘목련’은 간고한 시련 끝에 ‘주체조선’의 해외 공민의 자격을 얻은 재일 조선인의 뜻뜻한 의지와 기상을 잘 말해주었기 때문이다.

동호는 목련꽃을 볼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안팎의 반동들의 방해 책동을 물리치고 사대주의와 노예사상에 물 젖은 일부 사람들의 편견을 갖은 고초를 겪어가며 기어이 이겨낸 이 대학을 창립한 일군들의 원대한 리상과 충직스런 의지가 안겨 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군 한다.¹⁴⁾

10) 김학렬, 「주체사실주의의 가치를 높이 들고 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문예 로작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문학예술』 제105호, 1993. 3.

11) 『풍랑을 헤치며』(총련결성45돐기념문학작품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0.

12) 『겨레문학』 제2호, 2000년 가을.

13) 『문학예술』 제96호, 1990년 봄.

‘목련’은 ‘위대한 수령님’을 가리키는 하나의 기호 역할을 한다. 당연히, 등장인물들은 ‘주체조선’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특히 민족교육에 헌신하고자 한다. 옥순이 아버지는 일제 강점기 때 소년의 몸으로 훗카이도 비바이 탄광에 강제 징용당해 혹독한 고역과 채찍에 시달렸고, 이후에도 온갖 차별과 멸시를 당했다. 그래서 자녀교육에 대한 그의 애착은 남다르다. 아이들만은 반드시 ‘조선사람’으로 훌륭하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조선 사람이다. 일본 땅에 살고 있지만 조선 사람이다. 아버지가 여기 온 것은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라 일본놈들이 고된 일을 시켜 부려 먹으려고 끌고 온 것이다. (중략) 그러니 조선에 아버지, 어머니의 고향이 있고 아버지의 아버지, 너희들의 할아버지가 거기 계신다. 할아버지는 너희들이 일본학교에서 일본 공부만 하고 있는 것을 알면 슬퍼하실 거다. 너희들은 일본에 있어도 조선 공부를 하여 조선 사람이 되어야 한다.¹⁴⁾

옥순이의 오빠 둘은 이미 조선대학교를 졸업하고 ‘조총련’의 일꾼이 되었고, 하나는 동경에 하나는 센다이에 가 있었다. 그런데 옥순이 아버지는 이제 어린 옥순이까지 멀리 있는 조선학교에 보내려고 한다. 주위에 일본학교에 다니는 조선인을 보면 도저히 조선 사람 같지 않고 일본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강하게 반대했지만, 옥순이는 끝내 여섯 살 때 집을 떠났고, 이제는 벌써 16년이 되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딸이 결혼하기 전에 2~3년이라도 집 가까이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함께 살고 싶지만, 옥순이는 어머니와 생각이 다르다. 학교를 졸업하면 교사가 부족한 벽지에 가겠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옥순이 어머니는 섭섭해 하지만, 그녀가 딸을 걱정하는 것 못지않게 옥순이가 어머니를 걱정하며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곧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 그리고 동호는 이들을 지켜보면서, ‘조총련’의 애국사업은 이처럼 순박하고도 강인한 수많은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의 애국열성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고 깨닫는다.

옥순이 부모는 ‘조총련’ 지부의 주선으로 빠짱코 가게를 운영하는데, 빈터

14) 박종상, 「어머니 심정」, 앞의 책, 518쪽.

15) 위의 작품, 522쪽.

를 빌려 바라크 집을 지었다. 때마침 일본 경제의 고도성장 물결을 타고 그곳도 급격히 인구가 늘어났고, 그들의 가게 주변도 2~3년 사이에 새로운 가게들이 많이 들어섰다. 그러나 이들이 운영하는 빠짱코 가게는 위태하기 짝이 없다.

서상각의 「추억」은 재일 조선인이 너도나도 운영하고 있는 빠짱코 가게의 현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차별과 멸시 속에서 조선 사람이 손쉬운 돈벌이로 시작한 빠짱코 산업은 오늘 20조엔, 30조엔 시장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비대해졌으며, 대기업들이 일본 가는 곳마다에 착실히 유기업 점포망을 넓혀 나가고 있었다. 그런 속에서 중소 점방들은 문을 닫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자본 몇 천억이라는 대기업과 맞서면 물거품처럼 덧없이 사라지는 것이 이른바 조선 사람의 빠짱코 기업일가....¹⁶⁾

태호는 지금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역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일본의 대기업이 새 가게를 내면서 손님들이 대부분 그 가게로 가기 때문이다. 그때 가게 옆 고층건물을 가진 일본인이 뜻밖의 제의를 해왔다. 불경기 바람에 건물은 텅 비고 건물도 낡았으니 살 마음이 있으면 팔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태호는 이 건물을 사들여 빠짱코를 포함한 여러 게임기계를 놓고 종합오락장을 꾸리려고 한다. 이것은 큰 투기, 아니 도박으로, 만약 장사가 안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아버지는 유일한 유산으로 그에게 이 빠짱코 가게를 물려주었다. 그래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기에 마음을 추슬러야 했다. 생전에 아버지가 마음을 다 잡던 곳, 우울해 있다가도 기분을 전환하던 곳인 하쓰시마 바닷가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갖 차별과 멸시 속에서도 빈손으로 장사를 일군 아버지처럼, 그 또한 강한 의지로 사업을 하겠다고 다짐한다.

빠짱코 가게는 북한의 외화벌이 차원에서건 아니면 재일 조선인의 생계유지 차원에서건, 그들이 ‘재일’의 조건에서 부딪치지 않을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라 하겠는데, 리상민의 「황금탑」에서는 빠짱코 가게가 재일 조선인들을 하

16) 서상각, 「추억」, 343쪽.

나로 규합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이 작품에는 작중인물 권정도와 그의 아들 창일, 그리고 그의 수양 딸 수희가 선명하게 대조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권정도와 창일이 속물적인 인간으로, 수희는 ‘조총련’의 이상에 따라 행동하는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해방 직후 일본으로 건너오면서 아내와 아들 창일과 헤어진 권정도에게 돈은 곧 인생의 전부이다. 그는 돈이면 명예나 사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그의 생활철학이다. 그런데 수양 딸 수희는 그와는 다르다. 그래서 충돌도 자주 생긴다. 그는 데릴사위를 들여 재산 관리를 하게 할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수희는 재산 보고 찾아오는 남자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는 한국전쟁 때 행방불명된 아내와 아들을 한국에서 찾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내는 한국전쟁 때 이미 죽었고, ‘민단’에 거액을 주며 아들을 찾은 그는 다시 돈의 힘으로 아들을 일본으로 불러들인다. 그리고 아들에게 자신의 생활철학을 전수하고 모든 재산을 넘겨주려고 한다.

그런데 아들이 가게에 들어온 뒤로 수지가 맞지 않고, 돈이 자꾸 없어진다. 아들은 전혀 사업을 이어갈 재목이 아닌 것이다. 그 무렵 수희는 그 동안 생각해오던 대로 ‘총련’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떠난다. 연말에 세금계산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조총련’ 지부 사무소를 찾아간 수희는 주위사람들 수군거리는 말을 듣게 된다. “평시에 총련 조직과 담을 쌓다가도 자기 이득에 부합되는 세금신고 댐 염치없이 찾아오니. 원... 낮가죽이 어떻게 두터운지...” 그때 이후 그곳에서 일하는 한 남자를 알게 되고, 그와 교제하면서 아버지의 인생관에 의문을 갖기 시작, 마침내 집을 떠나게 된 것이다.

수희가 떠난 뒤, 권정도는 아들이 자기가 고혈압으로 빨리 세상을 떠나기를 바란다는 것, 그리고 재산의 명의를 아들 이름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직원들도 단합하여 과도하게 월급 인상을 요구하자, 권정도는 비로소 돈이 모든 문제로 결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딸 수희가 그리워진다. 그는 끝내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을 희미하게 놓게 되지만, 그러나 그 동안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아꼈으므로 찾아오지 않고, 유독 ‘조총련’ 사람들 잔란으로 와서 도와준다. 권정도는 이들에게서 60

여 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기쁨을 느끼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문예동’ 작가들의 작품들에 주요한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빠짱코 가게는 이중의 의미를 갖고 있다. 빠짱코 가게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재일 조선인이 일본인과 대응하는 하나의 도구임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재일 조선인이 외면할 수 없는 ‘재일’의 조건, 재일 조선인의 삶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바꿔 말하여, 이러한 이중적 의미는 북한의 ‘주체사상’과 재일 조선인의 삶의 간극에 다름 아니라 할 수 있다.

3. 세대간의 갈등과 균열의 틈새

빠짱코 가게가 북한의 ‘주체사상’과 재일 조선인의 삶의 간극을 잘 보여준다면, 세대 간의 갈등은 재일 조선인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관련하여 그들의 깊은 고민을 보여준다. 물론 지금도 대를 이어 ‘조국’(북한)에 충성하자는 ‘구호’는 여전하지만, 그러나 그 ‘구호’가 내포하는 의미는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

박순애의 「리별의 끝」¹⁷⁾은 자녀를 버리고 북한에 들어간 부모와 그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아들의 시각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철수의 부모는 20여 년 전 7살짜리 철수를 버리고 귀국선을 타고 ‘조국’으로 갔는데, 청년으로 성장한 철수는 ‘총련’ 교육대표단 일원으로 ‘조국’을 방문한다. 그가 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오려는데, 흰 치마 저고리를 입은 그의 어머니가 공화국기를 흔들며 따라온다. 그때 철수는 자기를 버리고 떠난 아버지의 옛 모습을 떠올리며, 아버지는 아버지의 친구 병규와는 너무 다르다고 생각한다. “왜 아버지도 병규 아저씨처럼 살지 못했을까?” 아버지는 병규에게 아들 철수를 맡기고 살 길을 찾아 조국으로 갔지만, 병규는 귀국 뱃길을 열어놓기 위해 싸우다가 붙잡혀 감옥에 가고, 그때 얻은 병으로 계속 고생하면서도 한평생 ‘총련’

17) 『문학예술』 제106호, 1993년 여름. 이 작품은 북송 문제를 다루면서 일방적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량우직의 『비바람 속에서』(문예출판사, 1991)와는 달리, 일정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애국사업에 바쳤던 것이다.

철수는 병규가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해준다. 친구가 힘들 때는 친구의 아들을 맡아 키우고, 정작 그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친구의 아들을 다시 친구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이제는 더 많은 아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철수는 병규 아저씨의 이 편지를 읽고, 함께 살자는 아버지의 청을 뿌리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병규 아저씨처럼 자라나는 세 세대들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한다.

이 작품은 갈수록 심화되는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재일 조선인 사회가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철수를 버리고 북한에 들어간 부모와 그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철수의 시각을 대조하거나, 또 철수의 아버지와 친구 병규의 시각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과는 다른 재일 조선인의 위치를 진솔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주목되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재일 조선인 2, 3세대를 교육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일 조선인 문학이 북한문학에 일반적으로 견인되지만은 않는 그들만의 틈새를 미세하게나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런 관점에서 조나미의 「결혼식」¹⁸⁾과 「이역의 청춘」¹⁹⁾도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이들 두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조총련’ 사업에 매진하는 인물들과는 사뭇 다르다, 「결혼식」은 결혼식을 위해 준비한 돈을 결국에는 조선학교 건축을 위해 내어놓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행복’이나 아니면 ‘학교’와 ‘동포’냐를 두고 두 젊은이가 갈등하는 모습을 진솔하게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역의 청춘」은 그 갈등의 양상을 더욱 꾀진하게 그리고 있다. 방울과 철진은 다 같이 조선대학교 문학부 졸업생이다. 학교 선생님은 그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들이 재일 조선인 3세대 작가가 되고, 그리하여 1세대와 2세대를 이어 재일 조선인들의 생활을 잘 그렸으면 하는 바람 때문

18) 『겨레문학』 제3호, 2000년 겨울.

19) 『겨레문학』 창간호, 2000년 여름.

이다. 그래서 그들이 학교에 남아 후배들을 가르치며 작품 활동을 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이들은 선생님의 기대와는 달리 다른 길을 택한다. 졸업을 눈앞에 둔 어느 날, 방울은 철진에게 눈물을 흘리며 고백한다. “난 이제 글을 못 써. 전 주에 우리 언니가 일본 사람과 결혼했어.” 그리고 “자기 가족의 국제결혼마저 막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이런 문제를 놓고 소설을 쓸 자격이 있어?” 하며 반문한다. 철진이 “눈을 떠라. 현실은 소설처럼 간단치 않는 거다.” 하며 격려하지만, 방울은 얼마 뒤 ‘조국’에서 2년간 소설 창작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거절한다. 방울은 이미 반년 전에 일본 출판사가 주최하는 연애소설 콩클에 흥밋거리로 일본어로 쓴 작품을 보내 입상한 일이 있는데, 이 회사에서 그녀에게 본격적으로 연애소설 작가로 훈련받을 수 있는 취직 안내서를 보내온 것이다. 방울은 일본 출판사에 취직하는 것이 더 장래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일하기로 결정한다.

“장래성?!”

“그래, 앞으로 우리 재일 조선인 작가로 자라났다 한들 어떤 리익이 있지?”

“리익?!”

“그래, 이 어려운 동포사회의 현실을 썼다 해서 누가 기뻐하며 나에게 얼마만한 리익이 차레진다는 거냐? 나에겐 환상과 리상이 넘치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연애소설이나 쓰는 게 딱 맞아.”²⁰⁾

재일 조선인 작가로 성장한다고 해도 아무런 이익도 없고 장래성도 없고, 그래서 모두 부러워하는 연애소설가가 되겠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방울은 ‘생활’의 논리로 자기 합리화를 강변하고 있다고 하겠는데, 이는 언니의 국제결혼에 대한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언니가 국제결혼을 했을 때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으나 그것은 순간일 뿐이고, 자기 가족은 날이 가면 갈수록 국제결혼인가 아니면 민족결혼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언니의 행복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20) 위의 작품, 570쪽.

졸업 후 철진은 도쿄 관하 고급학교 교원이 되고, 방울은 이름도 ‘기무라 수주’로 개명한다. 방울에게서는 더 이상 ‘조선 사람’이라는 긍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방울은 뒤늦게 자신이 현실을 도피하려고 했다면 자책하지만, 그녀는 ‘재일’에 적응하는 재일 조선인의 갈등의 편린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는 없다.

강태성의 「유언」²¹⁾ 「물길 백 리, 꿈길 만 리」²²⁾는 세대 간의 갈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들이다. 이들 작품은 오직 조국과 조직만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 세대와 달리, 자기의 생활과 가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들 세대의 갈등을 보여준다.

1세대들은 숨지고 2세대도 부모들의 간절한 꿈을 버려 본토로 떠나갔다. (중략) 자기 대에 정말 쓰시마 생활이 끝이 날 것인가. 말로는 섬 생활을 청산했어도 뭇지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문삼이었다. 자기의 고향처럼 뿌리 내린 쓰시마, 남의 나라 땅에 왔어도 조국이 제일 가까운 쓰시마에 산다는 긍지로 자신을 위로해 왔다. 그러나 그런 작은 위안을 자기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²³⁾

쓰시마 섬 사람들은 대부분 조국에 귀국하고, 또 남아 있는 사람들도 살 길을 찾아 하나 둘 일본 본토로 떠나가, 이제는 겨우 백여 명만 살고 있다. ‘조총련’ 쓰시마 본부도 예전에는 이름을 날렸으나, 1986년 이후 문을 닫았다. 무엇보다 세대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 이는 어느 한인사회에서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지만, 특히 북한의 ‘해외 공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재일 조선인에게 더욱 무겁게 다가온 문제라 할 것이다.

21) 『우리의 길』, 문예출판사, 1992. 2.

22) 『겨레문학』 창간호, 2000년 여름.

23) 위의 작품, 281-282쪽. 그의 작품 「유채꽃은 피고 지고」(『겨레문학』 제7호, 2000년 겨울-2000년 봄 합동호)도 이렇게 적고 있다. “1세대들은 가정보다 먼저 조직을 생각하고 조국을 생각했다. 통일을 위한 일이라면 한두 끼니 밥을 굶는 것도 대수로운 일이 아니었다. 이제 우리는 시대에 맞지 않는 골동품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던 말인가.”(302쪽)

4. ‘민족’과 ‘개인’의 균열과 그 틈새

1947년 5월 2일 일본 정부는 ‘외국인등록령’을 공포한다. ‘일본 국적’을 가진 한국인, 조선인, 그리고 대만인은 당분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오늘날 재일한인이 있게 한 근원적인 배경으로,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지문 날인 등을 통해 ‘귀화’를 강요한다. ‘귀화’는 ‘국가’와 ‘민족’간의 문제, 그리고 한 ‘국가’ 내에서 개별 민족 구성원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 일간신문에 소개된 한 여인의 말은 ‘국가’와 관련하여 재일 조선인이 놓여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조국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묻는다. 조국의 의미가 뭔지, 내 조국이 어디인지 아직도 모르겠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유는 ‘패스포트(여권)’가 필요해서, 일본 국적을 취득하면 아버지가 노발대발할까 염려스러웠기 때문이다. 국적은 한국이지만 한국을 조국이라 하기엔 어색하다. 한국인과 있으면 내가 얼마나 일본인인지 느끼게 된다. 일본이 제일 가깝겠지만, 조국이라기엔 이제껏 받았던 상처와 설움이 너무 많다. 조국이란 내게 한국, 북한, 일본 이 셋일 수도 있고, 또는 이 모두가 아닐 수도, 또는 이 셋의 조금씩 일지도 모르겠다. 그저 오사카를 고향에 둔 마흔일곱의 영화감독 양영희, 그게 나다.²⁴⁾

위의 인용은 한 ‘개인’에게 ‘국가’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주지하듯, ‘국가’가 ‘민족’을 결정한다는 것,²⁵⁾ 그리고 다민족(인종)국가의 경우 그 ‘국

24) 『국민일보』, ‘story AND’, 2011. 1. 28, 23면. 양영희 감독의 아버지는 ‘조총련’ 간부였다. 그리고 오빠 셋은 만경봉호를 타고 북한에 들어갔다. 그녀는 1983년 조선대학교를 졸업하고 1987년부터 ‘조총련’ 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를 하다 2년만에 그만두었다. 그 뒤 연극 제작자와 배우로 활동했고, 논픽션에 관심을 가져 1997년부터 6년간 뉴욕에 머물며 뉴스쿨대학에서 미디어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 사이 10여 차례 평양의 오빠들을 만났고, 후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디어 평양’이라는 영화를 북한 당국의 허락 없이 촬영했다며 더 이상 북한에 들어갈 수 없었다. 최근에 후속작 ‘굿바이 평양’을 내놓았다.

25) 에르네스트 르낭, 『민족이란 무엇인가』, 신행선 옮김, 책세상, 2002. 99-111쪽 참조.

가' 내에 민족(인종)간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²⁶⁾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민족'이 끝내 포섭하지 못하는 '개인'의 내밀한 공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 셋은 우리가 '국가' 또는 '민족'과 '개인'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문제들이다.

'민족(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은 크게 보아 둘로 나뉜다. '민족'의 녀를 일방적으로 고양하는 작품, 미세하나마 그것에 틈새를 만들어내는 작품이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 '민족'이란 하나의 상징으로서, '개인'은 일방적으로 그것이 요구하는 논리에 맞추어야 한다. 고을룡의 「꿈」²⁷⁾에 등장하는 '나'는 시합을 하다 사고를 당해 더 이상 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사랑하는 경애와도 스스로 거리를 두고, 자포자기하며 고독의 나날을 보내다가 초급부 축구반을 맡게 되면서 다시 보람을 찾게 된다. 그가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경애 때문이다. 경애는 변함없이 그가 초급부 축구반을 맡아 재기하도록 배후에서 도와준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이국땅에 살면서도 민족의 녀를 지키고 조국을 받들어가는 이 진실 속에서 꽃 피가는 꿈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경애를 배반한 4년간은 민족의 녀를 버리고 살았던 4년간이기도 하다. 경애는 이런 나에게 꿈과 함께 조선 사람으로서의 재생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중략) 경애는 역시 코스모스이다. 민족의 녀를 지켜 나가고 조국의 위용을 떨쳐 나가는 뜨거운 꿈을 찾아가는 정직하고 순진한 코스모스이다.²⁸⁾

'개인'에게 '민족의 녀'와 '조국'은 절대적인 가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귀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재일 조선인의 노력과 함께, '국가'와 '민족'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박순영의 「귀착」²⁹⁾은 그 한 예이다. 이 작품은 일본인 시즈미 과장과

26) 고모리 요이치(송태욱 옮김), 『포스트콜로니얼-식민지적 무의식과 식민지적 의식』, 삼인, 2002. 17-63쪽.

27) 『겨레문학』 제4호, 2001년 봄.

28) 위의 작품, 563쪽.

29) 『우리의 길』(재일조선작가단편집), 문예출판사, 1992. 그의 작품 「맹아」(『겨

재일 조선인 성학의 대조가 눈길을 끈다. 성학은 직장에서 재일 조선인으로서 차별을 경험한다. 그의 동생도 조선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성학은 부부 싸움 끝에 아내에게 귀화하면 만사가 해결된다, 조선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날까 가슴을 태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상냥한 웃음을 띤 사람까지 망라하는 인간 차별은 얼핏 보기에는 알 수 없었다. 인간 차별은 생활의 고비고비에서 사람들에게 들쭉우는 고통 속에서 맥맥히 숨을 이어가고 있었다. 인간 차별은 고통을 참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차별에서 벗어날 길이라고 하는 귀화의 길을 대준다.

나도 귀화의 길 어구에 몇 번이나 선 사람이다. 그때마다 그 길 어구에서 되돌아서게 된 것은 귀화가 인간 차별의 고통을 풀어주는 체하면서 그보다 더한 고통을 갖게 되는 민족의 녀를 버릴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중략)

성학은 뒤늦게나마 민족의 녀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는 대오에 다시 서게 된 기쁨으로 하여 힘이 부쩍 났다. 개인의 생활 속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힘이였다.³⁰⁾

‘민족의 녀’와 ‘민족의 존엄’ 그리고 ‘개인’의 욕망간의 이와 같은 갈등은 결국 분회원의 도움으로 해소된다. 동생이 우여곡절 끝에 분회원의 도움으로 집을 구하자, 그것에 감동을 받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몇 년 만에 분회 대회에 참가한다. 차별을 경험하면서 ‘귀화’를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민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박순애의 『입술연지』³¹⁾는 일본인의 재일 조선인 차별을 비판적으로 내보인 작품으로, 일본인의 민족 차별은 그 뿌리가 서구인이 일본인에게 강요한 오리엔탈리즘적 사고를 그들이 답습한 데서 연유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미순이 나의 프로포오즈에 쾌답을 주지 않는 건 국적 문제 때문에 우리

『레문학』 제4호, 2000년 봄) 또한 이사 문제로 차별을 경험한 주인공이 분회원의 도움으로 다시 작성하는 내용을 다룬다.

30) 위의 작품, 385쪽.

31) 『문학예술』 제106호, 1993년 여름.

부모가 반대하는 걸 예견해서 그렇다고 나는 추측했어. 그레 부모한테 먼저 이야기했어. 응당 찬성이겠어. 조선 사람이라도 좋단 말이야. 여러 번 말했지만 우리 부모는 선진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 서양인을 데려오기보다는 훨씬 잘 했다고들 하잖아?! 그레 일본에서 나서 자랐으니 일본 사람하고 뭐 다를 게 있니? 하여튼, 뭐, 일본인 며느리 맞이한 것과 별다름이 없다고 했어, (중략) 그레 필요하면 귀화하면 되는 거고, 간단한 문제야...³²⁾

위의 인용은 제일 조선인 여자 미순에게 청혼한 일본인 남자 료오따의 발언으로, 일본인이 지니고 있는 민족 차별의식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서양인을 데려오기보다는 훨씬 잘 했다고들 하잖아?!” 라는 말에서, 그가 이제 동양인의 관점에서 서구인을 차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별의식은 오리엔탈리즘이 또 다른 모습으로 변형된 것으로, 그만큼 서구인이 암암리에 조장했던 오리엔탈리즘적 사고가 이미 내면화되어 있고, 그래서 조선인을 그보다 열등하다고 차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료오따와의 통화를 끝내고 나서 미순은 생각한다. 조선 사람이라도 좋다고? 일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일본인 며느리? 귀화?”(538쪽) 이렇게 생각하자, 미순은 그의 열렬한 청혼을 왜 그 동안 받아들이지 못했는가를 확실히 깨닫게 된다. 알고는 있었으나 모르는 척 하려고 했었고, 그냥 눈 감고 가려고까지 했던 차별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그녀는 과랴게 질리는 입술을 붉은 입술연지로 칠하듯, 자신을 가리고 또한 속이려고 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었다. 료오따의 시각이 민족차별의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미순의 이와 같은 의도적인 외면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새삼 자각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미순은 료오따가 선물로 준 붉은 입술연지 대신 료오따가 쓰지 말라고 했던 연분홍색 입술연지를 꺼내 입술에 꼭꼭 바른 다. 이는 차별을 넘어서고자 하는 그녀의 결연한 의지의 소산이며, 단순히 ‘민족의 닻’과 ‘민족의 존엄’으로만 회귀되지 않는 그녀 ‘개인’만의 깨달음에 다름 아니다.

32) 위의 작품, 538쪽.

5. 마무리

일본 정부는 1980년대부터 ‘조총련’에 대한 방해 공작을 노골화하고, 1995년에는 ‘반(反)공화국’ ‘반(反)총련’ 캠페인을 전개하며 그것을 더욱 강화한다. 이는 ‘재일 한국인’과 ‘재일 조선인’의 분열을 가속화시키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체제의 이념을 선전하거나 고취하는 작품들이 많이 창작된다.³³⁾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후에는 ‘주체사상’과 ‘민족의 녀’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미세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빠짱코’ 가게를 둘러싼 ‘생활’ 문제가 자주 다루어진다거나,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보다 심화된 인식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균열의 틈새는 재일 조선인사회의 미세한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일 조선인 문학에서 나타나는 빠짱코 가게는 이중의 의미를 갖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재일 조선인이 일본인과 대응하는 하나의 도구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재일’의 조건을 외면할 수 없는 재일 조선인의 삶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주체사상’과 재일 조선인의 삶의 간극에 다름 아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재일 조선인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관련하여 그들의 깊은 고민을 보여준다. 물론 지금도 대를 이어 조국에 충성하자는 ‘구호’는 여전히 하지만, 그 ‘구호’가 내포하는 의미는 예전과 다르다. 박순애의 「리별의 끝」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이 작품은 아들 철수를 버리고 북한에 들어간 부모와 그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철수의 시각을 대조하거나, 또 철수의 아버지와 끝까지 일본에 남아 재일 조선인을 돌보는 친구 병규의 시각을 대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북한과는 다른 재일 조선인의 위치를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는 재일 조선인 문학이 북한문학에 일방적으로 견인되지만은 않는 그들만

33) 1900년대 이후 재일 조선인 문학의 현황에 대해서는 손지원, 「재일동포국문 문학운동에 대하여」(김중희 편, 『한민족문화권의 문학 2』, 국학자료원, 2006) 참조.

의 틈새를 미세하게나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귀화’는 ‘국가’와 ‘민족’간의 문제, 그리고 한 ‘국가’ 내에서 개별 민족 구성원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민족(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은 크게 보아 둘로 나뉘는데, ‘민족’의 낯을 일방적으로 고양하는 작품과 미세하나마 그것에 틈새를 만들어내는 작품이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 ‘민족’이란 하나의 상징으로서, ‘개인’은 일방적으로 그것이 요구하는 논리에 맞추어야 한다. ‘개인’에게 ‘민족의 낯’과 ‘조국’은 절대적인 가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제일 조선인의 노력과 함께, ‘국가’와 ‘민족’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즉 단순히 ‘민족의 낯’과 ‘민족의 존엄’으로만 회귀되지 않는 ‘개인’만의 영역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데,³⁴⁾ 이러한 미세한 변화는 ‘문예동’ 소속 작가들의 작품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짐작케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제어 : 재일 한인, 재일 한국인, 재일 조선인, 재일 한인문학, 주제
사상, 세대간의 갈등, 민족, 개인

34)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언급한 바, 양영희 감독이 ‘조총련’ 간부를 지낸 아버지
에 대한 다음 고백은 참고할 만하다. “영화를 찍으면서 오히려 이런 가족과의
충돌은 사라졌다. 3년 동안 카메라 앞에서 말 한마디 하지 않던 아버지가 카메
라 앞에서 웃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일흔이 넘으면서 북한 정권 찬양하는 노
래를 부르지 않았다. 술 드시면 늘 노래를 불렀는데, 젊은 시절 아버지는 북한
노래 먼저, 남한 노래를 그 다음에 불렀다. 그런데 내복 차림의 나이든 아버지
는 그저 순수하게 부르고 싶은, 마음의 노래를 시작했다. ‘해당화 피고 지는 섬
마을에 철새 따라 찾아온 총각 선생님 / 열여덟 살 섬 색시가 순정을 바쳐 사랑
한 그 이름은 총각 선생님...”(앞의 『국민일보』 기사 참조)

<참고문헌>

1. 자료

『우리의 길』(재일조선작가단편집), 문예출판사, 1992.

『풍랑을 헤치며』(총련결성45돛기념문학작품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0.

강태성, 「유언」, 『겨레문학』 창간호, 2000년 여름.

_____, 「물길 백리, 꿈길 만리」, 『겨레문학』 창간호, 2000년 여름.

_____, 「유채꽃은 피고 지고」, 『겨레문학』 제7호, 2000년 겨울-2000년 봄 합동호.

고을룡, 「꿈」, 『겨레문학』 제4호, 2001년 봄.

량우직, 『비바람 속에서』, 문예출판사, 1991.

리상민, 「황금담」, 『문학예술』 제96호, 1990년 봄.

박순애, 「입술연지」, 『문학예술』 제106호, 1993년 여름.

_____, 「리별의 끝」, 『문학예술』 제106호, 1993년 여름.

박순영, 「귀착」, 『우리의 길』(재일조선작가단편집), 문예출판사, 1992.

_____, 「맹아」, 『겨레문학』 제4호, 2000년 봄.

박종상, 「어머니 심정」, 『풍랑을 헤치며』(총련결성45돛기념문학작품집), 문학
예술종합출판사, 2000.

서상각, 「추억」, 『겨레문학』 제2호, 2000년 가을.

조나미, 「결혼식」, 『겨레문학』 제3호, 2000년 겨울,

_____, 「이역의 청춘」, 『겨레문학』 창간호, 2000년 여름.

2. 논저

고모리 요이치, 『포스트콜로니얼-식민지적 무의식과 식민지적 의식』, 송태욱
옮김, 삼인, 2002. 17-63쪽.

김학렬, 「주체사실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
자-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문예 로작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
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

- 키자, 『문학예술』 제105호, 1993. 3.
- 김형규, 「귀국 운동과 ‘재일(在日)’의 현실-재일본문학예술가동맹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한중인문학회, 2005. 8.
- 박종상, 「조선글로 소설을 쓰는 의미—〈오늘 왜 조선글로 소설을 쓰는가〉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 『겨레문학』, 2000, 겨울.
- 손지원, 「재일동포국문문학운동에 대하여」, 『한민족문화권의 문학 2』, 김종회편, 국학자료원, 2006, 211-220쪽.
- 에르네스트 르낭, 『민족이란 무엇인가』, 신행선 옮김, 책세상, 2002. 99-111쪽.
- 유숙자, 『재일 한국인 문학연구』, 월인, 2000.
- 이상갑, 「재일 조선인 문학비평의 민족문학적 의미」, 『한국언어문학』 제68집, 2009. 3. 411-414쪽.
- 이정석, 「재일 조선인 한글문학 속의 민족과 국가」, 『현대소설연구』,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6.
- 한승욱, 「재일동포 한국어 문학연구 총론(1)」, 『한중인문학연구』, 한중인문학회, 2005. 4.

3. 기타

- 『국민일보』, ‘story AND’, 2011. 1. 28, 23면.

[Abstract]

Japanese korean literature's forte and a gap of crack

Lee, Sang-Gab · Jeong, Duck-Jun

Japanese government has made sabotage to 'Pro-Pyeong feder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after 'Jochongreun') conspicuous after 1980's, and has all the more made 'Anti-North Korea' 'Anti-Jochongreun' campaign conspicuous after 1995. This has accelerated the division between North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South Korean residents in Japan. Fighting to that, there were many works that propagate and inbreathe the idea of North Korea.

Nevertheless the tiny mood of change is seen after 1990's. For example the living problem surrounding 'pachingco' store are more handled or the conflicts between generation, and the deep cognition to the 'Nation' and 'Race' is seen. In brief, 'Jochongreun' does not stress one-sidedly 'Juche idea' and the soul of nation. Especially these gap of crack is important because we read off the tiny mood of change.

'Pachingco' store has dual meaning in the literature of North Korean residents in Japan. In economic side, that serves as tool that North Korean residents in Japan cope with Japan, at the same time shows in the condition of 'In-Japan' the living reality of North Korean residents in Japan. This shows a gap of crack between 'Juche idea' and the living reality of North Korean residents in Japan.

If 'Pachingco' store shows a gap of crack between 'Juche idea' and the living reality of North Korean residents in Japan, the conflicts between

generation shows their deep troubles in regard to the direction that North Korean society in Japan takes. Especially the works that handles 'Naturalization' show concretely the conflicting figure between 'Nation' 'Race'. To conclude, their works emphasize the individual domain that is not converged to the soul of nation.

【Key words】 : Korean residents in Japan, South Korean residents in Japan, North Korean residents in Japan, Japanese korean literature, Juche idea, Conflicts between generation, Race, Individual

이상갑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608-737)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전자우편: leesg@hallym.ac.kr

정덕준

중국 연대대학 특임교수

(463-71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청송마을 성원 생떼빌 아파트 702동 502호

전자우편: djc21@naver.com

이 논문은 2011년 2월 13일에 투고되었으며, 2011년 3월 1일에 심사 완료되어 3월 3일에 게재 확정되었음.